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집단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중심으로

이 상 균**

지금까지 수행된 효과성 연구들은 단순히 효과성의 존재여부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고, 동일한 영역에서 수행된 연구들이 종합되어 정리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에 반해 메타분석은 효과성의 존재여부를 넘어 효과크기를 계산해냄으로써, 실천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파편화된 연구 결과들을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학회지와 학위논문을 통해 보고된 효과성 연구들에 대해 효과크기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된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들의 전반적인 효과크기는 .6366이고, 효과율(U_3)은 74.7%로 나타났다. 이는 10명 중 7명의 클라이언트들이 사회복지사의 개입활동으로부터 유용한 도움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특정영역에서 보다 효과적인 개입방법의 확인이 가능함을 발견하였고, 이는 추후연구를 통해 외적 타당도의 강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에서 이 연구는 메타분석이 실증적 연구에 기반한 개입전략의 수립과 한국적인 실천모형의 구축에 유용한 분석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 이 연구는 1999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1. 사회복지 실천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지금까지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을 이야기할 때, 매번 등장했던 질문이라면 ‘과연 사회복지실천은 효과적인가?’ 라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사회복지 전문직이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그 존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실천활동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지금까지도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사회복지전문직의 생존과 관련해 실천 효과성의 입증이 끊임없이 요구당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재하다는 Fischer (1973)의 발표 이래, 효과성의 존재여부에 관한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최소한 사회복지실천이 경험적 조사연구에 근거해 입증된 효과적인 지식, 기술,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로 자리잡았다.¹⁾

이러한 효과성의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전문직으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해 효과성 입증은 필수적이며, 이것을 소홀히 할 때는 정체성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이창호, 1990), 지금이라도 책임성의 문제를 외부에서 보다는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황성철, 1998).

하지만 이제 “사회복지실천은 효과적인가?”에 대한 답변은 “그 실천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답변으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 일차적인 이유는 사회복지 전문직이 클라이언트와 사회에 대해 신탁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Mattaini, Lowery & Meyer, 1998). 즉, 클라이언트와 사회로부터 사회복지실천을 위임받은 사회복지전문직은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법적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클라이언트는 가장 효과적인 개입을 받을 권리가 있다. 클라이언트는 자신들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현재의 방법 외에 다른 대안적 방법이 있음을, 또한 선택된 방법이 어느 정도의 성공가능성을 갖는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Bloom, Fischer & Orme, 1995). 이에 사회복지사는

1) 미국의 사회복지실천 효과성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황성철(1998)의 연구를 참조할 것.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 개입방법이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에 최선의 선택임을 밝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Tutty, 1990), 클라이언트에게 실증적인 뒷받침이 따르는 개입방법을 제공해야 한다(Thyer, 1995).

아울러 효과성의 존재여부뿐만 아니라 동일한 투입시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개입방법의 수행은 사회복지실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즉, “얼마나 효과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결국 사회복지전문직 외부의 승인을 위한 효과성과 내부적 발전을 위한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느냐라는 양적 측면에 강조점을 두는 현실은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화와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모색 및 개발을 초보적 수준에 머물게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효과성과 관련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활동의 현실을 살펴보고, 현실적합성과 임상효과성을 갖춘 개입방법의 모색을 가능케 하는 대안으로서 메타분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실제 사회복지 실천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의 수행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라는 앞의 질문에 답해보려 한다.

2. 사회복지실천 및 연구활동의 현황 분석

순수하게 임상적 활동만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는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지만, 임상적 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 사회복지사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전국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1997)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90%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김태성 외(1998)의 연구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의 58%는 자신의 업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이 실제 수행하는 활동 중에서 직접적 서비스제공 또는 직접적 실천활동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요한 사회복지 실천현장인 사회복지관의 경우, 공동사업 중 직접적 서비스제공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영역에서 1개 복지관당 1주일에 평균 321.6명의 클라이언

트들이 이용하고 있다. 또 선택사업 중 직접적 서비스제공에 해당되는 영역의 경우, 1개 복지관당 1주일 평균 이용자수는 213.2명에 달하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결국 이러한 수치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하는 직접적 실천활동의 비중과 부담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활동의 높은 비중에 비해 그러한 실천활동들이 제대로 전문성과 임상적 효과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유보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 및 효과성과 관련된 주된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론의 부재와 기술적 절충주의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들은 특정한 소수의 이론에 경도되거나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것은 사례에 따라 적절한 이론을 선택해 사용하고 있다는 이론적 유연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천이론의 부재를 의미할 수도 있다.

송성자(1999)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이 선호하는 특정한 실천이론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다만 내담자중심이론, 의사소통이론, 위기이론, 문제해결이론, 과제중심이론 등이 주로 많이 선택되어 사용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적 조사에서 응답한 사회복지사의 84%가 하나 이상의 이론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미국의 경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Jayratne, 1982).

하지만 ‘과연 사회복지사들이 각각의 이론들을 얼마만큼 정확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황성철(1999)의 문제제기처럼,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유연성을 의미하기보다는 이론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실무수행시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은 관련주제에 대한 조사연구의 결과나 사회사업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실무경험, 전문가의 조언, 동료의 조언, 상급자의 수퍼비전이었다는 김연옥(1993)의 연구결과에서도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Siporin(1985)이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실천이론의 통합과 이에 따른 결과로서 기술적 절충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뚜렷하게 선호되는 이론의 부재 또한 상이한 이

론적 근거를 갖는 실천기술들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절충되어 사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에 소개되는 사회복지분야의 집단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상이한 목적과 대상을 갖는 프로그램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을 뒷받침해 주는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경우 그 효과성이 입증된다 할지라도 프로그램 수행 그 자체 외에는 효과성의 주요한 근거를 찾기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

2) 효과성을 증명하는 산물연구의 결핍

홍경준(1998)은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한국적 현실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이론과 실천모형의 개발에 필수적인 재검증과 반증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외국 이론 또는 실천모형의 검증과 프로그램 효과성을 입증하는 단편적인 연구들이 산발적으로 실시될 뿐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진단·개입 및 평가와 관련된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총연구물 중 차지하는 비율은 12.8%에 불과한 실정이다(김연옥, 1998). 이는 결국 이식을 시도한 많은 외국 이론들마저도 아직까지 객관적인 성공의 증거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산물연구의 결핍은 학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평균 근무기간이 7년인 사회복지사 3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연옥(1993)의 연구결과를 보면, 서비스 실시후 서비스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실무에 종사하는 동안 실시한 경험이 평균 .43회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저조한 평가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들이 평가방법으로 전후조사나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비율은 15.5%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만족도, 평가서, 관찰후 판단 등 비계량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송성자(1999)의 연구는 효과성을 입증하는 실천현장에서의 노력이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19개의 집단프로그램의 분석한 김동배·이윤로(1995)는 비교집단을 사용한 연구는 5개에 불과하며, 사전사후 검사만을 수행한 것이 7개, 한번의 검사만 수행한 연구가 7개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실증적 검증이 용이한 집단간(between group) 연구에서도 그 효과성의 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실천현장에서의 산물연구 부족을 야기하는 이유로는 실무자의 지식부족, 산물(*outcome*) 보다는 산출(*output*)을 중시하는 사회복지 환경의 압력을 들 수 있다.²⁾ 산물연구에 대한 실무자의 지식부족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의 실시로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용자수, 제공된 서비스의 양 등으로만 측정되는 산출을 우선시하는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은 프로그램 목표의 달성여부 및 문제해결의 정도와 관련된 산물연구에 대한 실천현장에서의 관심과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 논문의 수가 4,662편에 달한다는 최근의 보고(송성자, 1999)는 상당수의 개입연구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문제는 학위논문의 경우 전문학술지나 사례보고서와 달리 개별실천가들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따라서 접근가능한 산물연구들의 부족이라는 현실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들 학위논문에 대한 종합적 정리와 분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실증적 연구결과의 파편화에 따른 개입방법의 비합리적 선택

많은 1차 연구들이 최근 발표되고 있지만, 실천현장에서는 그 결과들이 종합되지 못하고 파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복지실천의 과학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바탕 위에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문제의 개선이 아닌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지행동치료나 현실요법이 정신지체인들에게 사용되는 것과 같이 대상자에게 그 적용의 결과가 검증되지 않는 개입방법들이 무모하게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 즉, 개입방법의 선택이 실증적 연구결과에 따르기보다는 실천가의 임상적 감각과 편협된 경험에 의존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이론의 부재와 기술적 절충주의, 산물연구의 결핍 등과 함께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실증적으로 그 효과성이 검증된 연구결과를 개입활동에 반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들이 선택하고 적용하는 개입방법은 즉흥적이거나 흥미위주의 일회적이고 이벤트(*event*)적인 프로그램에 머무르고 있거나,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프로그램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높아져 가고 있다.

2) 산출은 제공된 서비스의 양적 측면, 즉 이용자수, 제공된 서비스투입량 등을 의미한다. 산물은 프로그램 활동의 참여에 따른 개인, 집단 등의 변화 및 수혜를 의미한다(United Way, 1996).

이에 사회복지사들은 상이한 이론적 배경을 가진 기법들로 구성된 실천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짜맞추기식 프로그램은 아무런 비판없이 모방과 왜곡을 통해 점점 더 기형적인 프로그램으로 변질되는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메타분석의 개념과 필요성

1) 메타분석의 개념 및 절차

메타분석이란 말 그대로 분석의 분석(*analysis of analysis*)을 의미한다. 즉, 원자료를 분석하는 일차연구물이 메타분석의 분석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은 이러한 메타분석의 가장 초보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의 고찰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중심으로 비구조화 또는 반구조화된 관찰방법에 의존해 왔다. 그렇기에 연구들간의 유사성과 차별성, 질적 수준, 비교결과에 대한 판단을 고찰자의 몫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Viduka-Sherman, 1997).

이에 반해 메타분석은 고찰하고자 하는 1차 연구물로부터 자료들을 결합하고, 각 연구들간에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를 각 연구물의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메타분석의 절차 및 특성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2) 메타분석을 활용한 선행연구

미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메타분석에 대한 연구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주요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메타분석의 초기연구로 가장 광범위하게 수행했던 것은 Viduka-Sherman(1988)이 정신건강 영역에서 수행된 개입연구들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연구였다. 1965년에서 1983년까지의 사회복지실천의 연구물 중 온라인 데이터베이스(*on-line database*)를 통해 142개의 효과성연구를 추출해내었다. 그 중 비교집단을 가진 30개의 연구물에서 0.51의 평균효과크기(*mean effect size*)를 구했으며, 이는 95%의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하였

〈표 1〉 메타분석의 절차 및 특성

고찰 순서	전통적인 문헌고찰의 접근	메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문제의 개발 • 연구물의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가능하고 관심있는 문제의 확인 • 관련 자료목록의 검색 • 출간보고물 및 학술지의 참고문헌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 동일 • 동일
연구물의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물의 특성, 유사성, 차별성의 고려한 질적 접근 • 연구물간의 차별성, 유사성에 대한 고찰자의 암묵적 판단 • 연구결과물은 유의미여부 또는 고찰자에 의해 요약됨 • 연구측정도구, 설계, 개입 방법에 대한 요약표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에 따른 연구물의 주요 변수와 방법론이 각 연구에 대해 부호화됨 • 연구특성의 자료목록을 구축 • 연구간 비교를 위해 표준화된 점수로 연구결과들이 요약됨 • 기술통계의 활용
결과물의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적 접근 • 눈에 띄는 결과에 기반한 결론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변량, 다변량통계기법을 이용한 상관분석 • 연구결과물의 변량을 예측하는 개념적, 방법론적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모델링 기법사용 • 계량적 분석을 통한 결론 도출

* Videka-Sherman (1997) 에서 재인용

다. 효과율(U_3 통계치)은 69%로, 개입집단의 평균적인 성원은 비교집단의 69%보다 나은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실천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후 Gorey, Thyer, & Pawluck (1998)은 사회복지관련 학술지로부터 45개의 연구물을 추출하였다. 이를 이론적 정향성에 따라 개인중심의 이론과 체계-구조적 이론으로 구분하고, 주된 표적체계의 특성에 따라 클라이언트 체계와 비클라이언트 체계로 구분하였다. 그런 다음 이론적 정향성에 따른 개입방법이 보다 나은 효과성을 보이는 표적체계를 효과크기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개인중심이론에 입각한 개입방법은 클라이언트 체계가 주된 표적체계에서 U_3 값이 79.8%로 나타나, 체계-구조적 이론정향성을 가진 개입방법의 U_3 값 66.2%보다 큰 효과율을 보였다. 반면 비클라이언트 체계가 표적체계일 경우 체계-구조적 이론정향성을 가진 개입방법이 U_3 값은 76.6%로 나타나, 개인중심적 이론정향성을 가진 개입방법의 U_3 값 69.6%보다 큰

효과율을 나타내었다.

한편, 메타분석의 분석대상이 전문학술지에 출간된 연구물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메타분석 결과의 일반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명, '서랍장 문제'(file drawer problem)가 발생할 수 있는데, 출간된 논문들의 경우 대개 일정정도 효과성을 보이는 연구들이기 쉽고, 효과가 없다고 확인된 연구물이나 미출간된 논문들은 메타분석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는 결국 표본의 편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³⁾

이에 De Smidt & Gorey(1997)는 미출간된 자료들과 학위논문에 대한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24개의 학위논문에 대해 효과크기를 계산한 결과, .296으로 나타났으며 U_3 값은 73%로 나타났다. 이는 학술지 연구들의 그것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Grenier & Gorey(1998)는 1990~1996년 동안 출간되지 않은 학술대회 자료(conference proceedings) 중 42개의 연구물에 대해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42개 연구물의 전반적인 개입효과크기는 .240이었으며, U_3 값으로 전환할 경우 개입집단의 클라이언트 중 69%가 비교집단의 평균적인 클라이언트보다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U_3 값은 출간된 연구물의 그것과 비교해 다소 낮은 값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출간된 연구물에 국한된 메타분석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출간된 학술지연구물과 유사하게 학위논문, 학술대회 자료 등 미출간된 연구물 역시 사회복지실천의 개입이 유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미출간된 연구 역시 개입결과의 성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학위논문 역시 성공한 연구가 그렇지 않은 연구보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Thomlison(1984)은 계량적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가족치료, 부부치료, 심리치료, 행동치료 등의 4가지 실천모형에 대해 실천모형, 실천가 특성, 클

3) 이러한 문제의 경우, 실패 - 안전사례수(Fail - safe N)를 구하는 것으로 해결한다. 가령, 효과크기가 0.2(이는 매우 작은 효과크기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낮은 평균을 보일 경우를 의미)인 연구들이 몇 편이나 추가되어야 전체 효과크기가 0.2로 낮추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실패 - 안전수(Fail - safe N)가 클 경우, 연구자는 분석되지 않은 논문수가 이와 같이 많을 수 없으므로 메타분석의 결과가 허위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다.

라이언트 특성 등 3개 변인을 가지고 산물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실천방법들은 산물에서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부문제에 대한 개별치료는 효과적이지 않은 치료전략이며, 가족치료접근 중 효과적인 치료접근으로 제시된 것은 부부간의 의사소통기술의 증진과 행동치료였다. 또한 계획된 단기효과개입은 덜 구조화되고 개방종결적인 접근과 비교하여 최소한 동일한 효과를 보여준다고 보고되었다.

실천가 특성요인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훈련은 긍정적인 치료산물에 대해 비전문직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의미있는 독립변수로 작용하나, 다른 전문직과 비교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월등하거나 뒤떨어진 결과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치료모형과 무관하게 진실함, 온화함, 감정이입과 같은 치료자 특성이 각 모형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효과크기와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실천가 특성을 가지지 못한 실천가 요인의 경우 클라이언트의 긍정적, 부정적 결과와는 의미있는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개입방법과 실천가의 능력은 독립적으로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클라이언트 요인과 관련해서 자발적 회복률은 연구에 따라 상이하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클라이언트의 악화는 거의 모든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아울러 동기, 성, 연령, 사회적 계층과 같은 클라이언트의 특성은 치료적 효과성을 예측하는데 의미있는 변수임을 증명하지 못했다. 이에 Thomlison(1984)은 절충적 사회사업실천이 장기적 목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를 합리적이고 책임있게 원조할 수 있는 명확한 접근법을 개발하고 규명하는 것이 실천가들에게 요구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는 “만병통치”(all thing to all people)적 개입방법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야 하며, 특정한 문제에 대해 계획되고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간제한적 접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메타분석은 왜 필요한가?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복지실천의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메타분석은 과연 어떠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메타분석은 실천활동이 반드시 실증적 연구결과에 기반을 둘 필요는 없으며, 그보다는 실천가의 임상적 감각이 더 우선시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개입전략은 오랜 실천경험을 통해 축적된 임상적 감각에 의존해 왔고, 실천가들은 어떠한 개입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왔다.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상이한 개입방법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온정적 관계, 성공의 기대, 지배감의 경험 등 특정한 개입방법과 무관한 요인들이 개입방법 자체의 효과를 압도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개입방법들간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도도새의 판정'(dodo bird verdict)⁴⁾ 또는 동점효과(tie-score effect)를 확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해결방법들이 선택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결과 개입방법의 선택은 실천가의 이론적 선호도, 소속기관의 전통, 개인적 취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수행되는 메타분석 연구들은 이러한 동점효과가 상이한 성격의 연구들을 비교하는 데서 오는 오류, 통계적 방법의 미비 등으로 인해 개입방법의 차별적인 효과를 확인하지 못한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Thomlison, 1984; Videka-Sherman, 1988; Reid, 1997; Gorey, Thyer & Pawluck, 1998).

결국 '상이한 내용, 동등한 결과' 라는 도도새의 판정은 개입방법의 과학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론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는 임상적 경험의 일반화, 짜맞추기식 프로그램의 실시 등도 개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연구에 기반한 실천활동(research based practice)이 갖는 중요성을 간과할 위험을 갖게 하는 것이다.

둘째, 메타분석은 '제2유형 오류'(type 2 error)를 최소화함으로써 사회복지전문직의 책임성 확보에 충실할 수 있다. 보다 나은 개입방법의 선택은 기존의 실증연구에서 중요시되었던 제1유형 오류의 배제보다는 제2유형 오류의 배제와 관련되어 있다.

4)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자기가 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시작하는 달리기 경주에서 심판의 역할을 맡은 도도새가 "모두 경주에 이겼고, 모두가 상을 받아야 한다"(Everyone has won and all must have prizes)고 판정한다. 다양한 개입방법간의 효과성비교가 무의미하다는 '도도새의 판정'은 행동주의 대 정신역동치료, 단기 대 장기개입, 집단 대 개별치료 등 다양한 심리치료접근을 비교하였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다수의 문제영역에서 보다 우월한 결과를 보이는 접근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Luborsky, Singer, Luborsky(1975)의 연구결과 이후 널리 받아들여졌다.

제1 유형 오류란 참인 영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계량적 분석에서는 이를 최소화하려 한다. 가령, A와 B라는 2개의 개입방법을 비교할 경우, 영가설은 A의 효과크기와 B의 효과크기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반면 사회복지사가 선택한 개입방법 A가 선택하지 않은 개입방법 B보다 큰 효과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립가설이다. 만약 이 경우, 제1 유형의 오류를 범해 개입방법 A가 선택되어 실시된다 할지라도 수혜대상자인 클라이언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다. 두 개의 개입방법은 동일한 효과크기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인 대립가설을 기각해버리는 제2 유형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책임성에 배치될 수 있다. 이는 특정한 개입방법의 효과크기가 다른 개입방법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 동일한 효과크기를 갖는다는 영가설을 참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2 유형 오류를 범하는 경우, 그 결과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책임성을 완수치 못한 것이며,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 메타분석은 가부 투표식(*vote-counting*) 효과성 입증방법을 지양할 수 있다. 기존의 효과성 검증연구들은 효과성이 통계적 의미를 가지는가 여부에만 초점을 둔 것이었다. 즉, 집단간 비교를 통해 양자의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따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개입방법이 비교집단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만을 알려줄 뿐이다.

특히, 집단의 사례수가 일정정도 확보된다면 평균값의 조그마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도를 획득할 수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 효과성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할지라도, 실천적 의미는 거의 얻을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우연에 의해 그러한 차이가 발생할 기준을 조금 넘는 값으로도 통계적 유의도를 가질 수 있다.⁵⁾ 결국 “실천적 유의도가 없는 통계적 유의도는 공허하며, 통계적 유의도가 없는 실천적 유의도는 맹목이다”(Bloom, Fischer & Orme, 1995: 490) 라는 지적은 기존의 가부투표식 입증방법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경고하고 있다.

반면 메타분석은 효과크기(*effect size*)를 계산함으로써, 단순히 효과성 존재여부를

5) 예를 들어, 자존감 평균점수에서의 1점 차이가 실제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입증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완치율과 같은 개념으로써 비교집단의 평균적 성원들에 비해 실험집단의 성원들 중 변화를 보인 비율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특정한 개입방법이 적용될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기대할 수 있는 변화의 폭을 알 수 있게 하므로, 다양한 개입방법들 중 보다 큰 변화폭을 보이는 개입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메타분석이 갖는 항법사(Navigator)로서의 역할이다. 기존의 효과성 검증연구들에서는 연구설계에서 사전에 통제하지 않는 한, 효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메타분석은 일차연구들의 효과크기를 계산한 뒤, 각 연구들이 갖는 공통적 요인들과 효과크기간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은 특정한 개입방법이 반복 실시될 경우, 효과크기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그 개입방법이 보다 더 성공적일 수 있는 조건들의 실증적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가령, 사회복지관에서 과제중심 접근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그 결과를 메타분석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문제영역, 수행기간, 대상자 특성, 실천가 특성 등 성공적인 개입방법의 조건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는 곧 사회복지관과 소속된 실천가들이 특정문제 상황에 대해 어떠한 개입방법을 선택해야 함을 알려주는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결국 메타분석은 개입방법의 실증적 근거와 성공적인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4.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소개된 효과성검증 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메타분석에 필수적인 사회복지실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입연구(intervention research)의 경우 사회복지학계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한국사회복지학》에서조차 그 비율이 6% (363편 중 22편)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표준화된 척도를 이

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더욱 희소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위논문과 사회복지 관련 학회지, 기관에서 발행한 사례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분석대상이 될 수 있는 연구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효과성 연구논문들의 목록을 추출한 후, 사회복지와 관련된 연구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분석대상연구물을 가려냈다.⁶⁾ 이러한 분석대상의 추출방법은 표집의 편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분석대상의 대표성과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편, 학위논문과 학술지 발표논문간에 질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양자를 모두 포함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서랍장의 문제'로서 학술지발표 논문의 경우 성공적인 결과만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실천은 항상 실패의 요인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실패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험도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실천가의 능력 및 특성의 차이 또한 연구물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현장에서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질(quality)의 차이'라는 문제를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실천현장의 다양한 모습들을 반영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양자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포함시킨 후 양자간의 효과크기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2) 효과크기의 측정방법 및 의미

효과크기(effect size)란 표준화된 평균차이다. 모집단의 효과크기를 δ 로 표시하는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모집단 평균을 μ_t , μ_c 로, 두 집단의 공통분산(pooled variance)을 σ^2 라 할 때, 효과크기 δ 는 다음과 같다(송혜향, 1998).

$$\delta = \frac{\mu_t - \mu_c}{\sigma}$$

한편 이러한 효과크기 모수에 대한 추정치로서 d 지수⁷⁾를 사용하는데, d 지수의 장점은 단위에 무관하게 비교집단과 비교한 치료집단의 치료효과를 나타내 준다는 점이

6) 일반적으로 메타분석의 경우, CD-Rom을 이용한 검색을 통해 초록에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초록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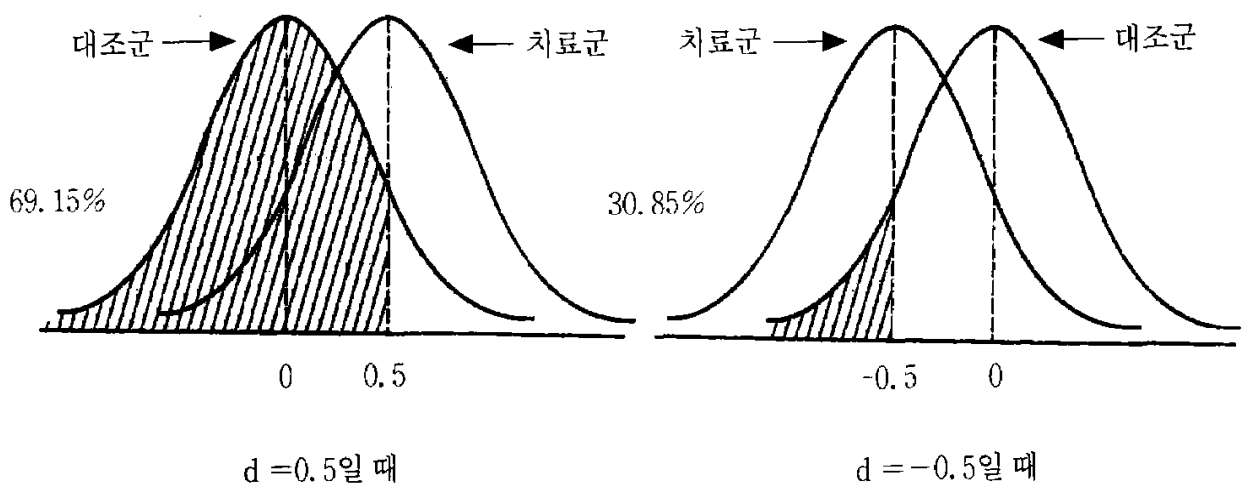
다. 따라서 자존감, 주장성, 우울, 불안 등 여러 척도로 측정된 연구들의 결과들도 서로 비교하고 종합할 수 있다.

효과성을 측정한 변수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할 때, 효과크기는 치료 집단과 비교집단의 분포가 겹치는 정도를 표현한다. 즉, 두 집단 평균의 차이를 공통 분산으로 나누어준 것이다. 따라서 거리가 크면 클수록 치료집단의 치료효과가 비교 집단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송혜향, 1998). 결국 효과크기는 공통분산 $S_p=1$ 로 조정된 산물변수의 척도에서 치료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차이로, 확률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메타분석에서는 실험집단의 성원들이 비교집단의 평균치보다 나아진 비율을 의미하는 U_3 값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효과크기 d 계수를 이용하면 된다. 그 후 구해진 d 계수값이 정규분포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두 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했을 때, $\Phi(d)$ 는 <그림 1>에서 빗금친 부분이다. 이는 치료집단의 평균치 d 보다 작은 비교집단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효과크기 $d=0.5$ 일 때, $\Phi(0.5)$ 는 .6915이다. 즉, 치료집단의 평균보다 작은 비교집단의 비율이 69%에 달한다는 것이다. 결국 치료를 받은 평균적인 클라이언

<그림 1> 효과크기의 확률분포적 해석



$$7) d = \frac{\bar{y}_t - \bar{y}_c}{S_p}$$

트들의 수치는 치료를 받지 않은 비교집단의 50%에서 69%로 증가하였다고 표현한다. 효과크기가 0일 경우, $\Phi(0) = 0.5$ 이다. 이는 치료집단의 평균적인 클라이언트의 수치가 비교집단의 50%에 달한다고 표현되는데, 이는 두 집단의 치료효과가 서로 대등함을 의미한다. 효과크기가 -0.5 일 때, $\Phi(-0.5) = .3085$ 이다. 따라서 이는 치료집단의 평균적인 클라이언트의 수치가 단지 비교집단의 31%보다 높다는 것으로, 오히려 개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못한 효과성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Cohen(1977)는 효과크기 0.2를 작은 효과크기로, 0.5를 보통의 효과크기로, 0.8을 큰 효과크기로 설명하고 있다.

5. 사회복지 실천프로그램의 효과크기 분석

1) 분석대상 연구들의 일반적 특성

연구자가 수집한 개입연구는 최초 30개였지만 개입집단이 동일하고 비교집단만 달리 설정한 중복연구 1개를 제외시켜 29개의 연구물을 최종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연구물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28개의 개입연구는 전체 표본크기에서 평균 18.64명이었고, 가장 적은 표본수는 3명, 최대 표본크기는 44명이었다. 개입집단만의 표본크기는 평균 12.88명이었고, 최소표본수는 3명, 최대표본수는 31명이었다.

설계유형은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사후검사 포함)를 사용한 연구가 12개(41.5%),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가 10개(34.5%), 비교집단 사후검사설계 2개(6.8%), 단일사례 연구가 1개(3.4%), 사례연구가 4개(13.8%)로 나타났다.

개입횟수 및 기간을 보면, 평균 9.39회로 나타나 단기개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소개입횟수의 경우 5회였고, 최대개입횟수는 19회였다. 그러나 정확한 횟수를 표기하지 않은 사례연구의 경우 7개월 동안의 개입기간을 기술하고 있어, 장기개입 역시 소수지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 영역을 보면, 아동·청소년이 9편(31.0%), 정신장애인 5편(17.2%), 부모 4편(13.8%), 가족이 3편(10.2%), 일반인 3편(10.2%), 학대받는 여성이 2편(6.8%),

〈표 2〉 분석연구물의 일반적 특성

연구 특성		빈 도	백분율	
설계유형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	12	41.5	
	통제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	10	34.5	
	비교집단 사후검사설계	2	6.8	
	단일사례 연구설계	1	3.4	
	사례연구	4	13.8	
대상자영역	아동·청소년	9	31.0	
	정신장애인	5	17.2	
	부모	4	13.8	
	가족	3	10.2	
	일반인	3	10.2	
	학대받는 여성	2	6.8	
	노인	2	6.8	
	실직자	1	3.4	
출간물성격	학회지 출간물	17	58.6	
	학위논문	12	41.4	
		평 균	최소값	최대값
표본크기	전체 사례수	18.64명	3명	44명
	개입집단 사례수	12.88명	3명	31명
개입횟수		9.39회	5회	19회

노인 2편(6.8%), 실직자 1편(3.4%)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결과가 현재 사회복지실천의 주된 경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출간물 성격을 보면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는 17편(58.6%), 학위논문은 12편(41.4%)이었다.

2) 사회복지 실천프로그램의 효과크기 분석

최종적으로 효과크기를 계산해낸 연구물은 16개였다. 단일집단 사례연구 중 집단간 비교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효과크기를 계산해내기에 충분한 통계치를 제시하지 않은 연구들이 제외되었고, 단일사례연구 및 사례연구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표 3〉 사회복지 실천프로그램의 효과크기

효과 크기	전체 연구	학술지 연구	학위 논문
사례수	16	4	12
최소효과크기*	-0.4167	-0.0627	-0.4167
최대효과크기	31.7205	31.7205	3.6593
평균효과크기	0.6636	0.3921	0.7703
표준편차	0.0685	0.1285	0.0812
95% 신뢰구간	0.5255, 0.8018	0.1310, 0.0022	0.6075, 0.9332
U ₃ 값	73.7%	65.3%	77.9%

*효과크기는 d 지수를 이용함.

16개의 효과성연구들에서 추출된 효과크기는 〈표 3〉과 같다. 전체연구에서 최소효과크기는 -.4167이고, 최대효과크기는 31.7205로 나타났다. U₃ 값으로 보면, 33.8%에서 100%까지 분포하는 것이다. 전체연구의 평균 효과크기를 보면, 0.6636으로 나타났다. U₃ 값은 74.7%로 나타나 개입집단의 클라이언트 중 74.7%가 개입하지 않은 집단의 평균적인 클라이언트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U₃ 값은 Grenier & Gorey (1998)가 분석한 학술대회자료의 효과율(U₃) 68.9%, 출간연구물의 효과율(U₃) 77.7%, Gorey, Thyer, & Pawluck (1998)가 분석한 45개 연구물의 효과율(U₃) 75.0%와 비교할 때 유사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결국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개입활동은 10명 중 7명의 클라이언트에게 유용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개별연구의 효과율(U₃ 값)에서 50% 미만을 보인 연구도 2가지가 있었다. 이것은 개입으로 인해 비교집단에 비해 개입집단의 상황이 보다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효과율(U₃ 값) 100%를 보인 연구도 1편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결과의 신뢰성에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과 학위논문간의 효과크기를 비교해 보았다. 평균 효과크기에서 학술지 연구는 0.3921을, 학위논문은 0.7703을 나타냈다. U₃ 값의 경우 학술지 연구는 65.3%를, 학위논문은 77.9%의 값을 보여 학위논문의 실천효과성이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de Smidt & Gorey (1997)의 연구에서 제시한 미국학위논문 실천효과율(U₃) 73.0%와 유사한 것이다. 또한 학위논문의 효과율이 학술지 발표연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는 학술지 발표연

〈표 4〉 대상자 영역별 실천프로그램의 효과크기

효과크기	아동·청소년	정신장애인	부모교육	여성	실직자
사례수	8	2	2	3	1
최소효과크기	0.1349	0.4552	-0.4167	0.1427	-0.0627
최대효과크기	31.7205	1.0311	0.7054	3.6593	0.0988
평균효과크기	0.6729	0.5940	0.2696	1.0658	0.2064
표준편차	0.1171	0.1469	0.2278	0.1393	0.2188
95% 신뢰구간	0.4350, 0.9107	0.3054, 0.8827	-0.1914, 0.7305	0.7844, 1.3473	-0.2246, 0.6374
U ₃ 값	74.9%	72.4%	60.7%	85.7%	58.2%

*효과크기는 d 지수를 이용함.

구가 성공적인 결과에 편중될 수 있는 점에서 비롯될 수 있는 출간연구물의 편의(publication bias) 가능성이 희박함을 의미한다.

대상자 영역에 따라 연구물들의 효과크기를 비교하여 보았다(〈표 4〉 참조). 먼저, 아동·청소년의 경우, 평균 효과크기는 0.6729로 나타났고, U₃ 값은 74.9%였다. 즉,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사가 개입한 집단의 74.9%는 개입하지 않은 집단의 평균적 성원보다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U₃ 값은 72.4%, 여성의 경우 U₃ 값은 85.7%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효과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들 세 영역에서는 10명 중 7~8명의 클라이언트들이 개입으로 인해 유용한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부모교육의 경우 U₃ 값은 60.7%로, 실직자에 대한 개입의 경우 58.2%로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율을 보여주었다. 부모교육의 경우, 참여대상자들이 심각한 자녀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자녀의 문제상황이 변화하지 않은 점이 목표로 했던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이라 생각된다. 실직자에 대한 개입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개입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며, 실업의 문제가 개인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낮은 효과율을 보인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90% 이상의 효과율을 보이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령전 장애아 어머니에 대한 현실요법과 대인관계기술, 알코올중독자 자녀에 대한 단기집단치료와 알코올 지식, 여중생들에 대한 자아존중감 집단프로그램, 노부모부양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과 자아존중감, 청소년에 대한 사회기술훈련과 사회성, 학대받는 여성에 대한

능력고취지향적 집단사회사업과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및 집단의식 등이 그것이다.

90% 이상의 효과율은 결국 개입방법을 이용한 10명 중 9명은 유용한 도움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기한 개입방법들이 상당히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개입방법은 해당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반복수행된 연구들의 효과크기들을 지속적으로 추가시켜 평균 효과크기에 대한 외적 타당도를 보다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6. 결론: 메타분석, 그 한계 속의 가능성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확인될 수 있는 의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실천들이 전반적인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적 차원에서 입증되었던 효과성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효과크기를 분석하였을 때,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은 73.7%의 효과율을 보이면서 개입활동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10명 중 7명의 클라이언트들이 개입으로부터 유용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효과율은 만족할 만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3명의 클라이언트들의 개입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다양한 대상영역 중 눈에 띄는 효과율을 보인 대상영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 학대여성 등이 그들인데, 높은 효과율은 이들 영역에서 사회복지실천이 보다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아울러 이들 대상영역에서 보다 높은 효과율을 보이는 개입방법의 확인을 통해 그 효과율은 보다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효과성 입증연구들이 보다 활성화되어야만 한다. 메타분석의 시기상조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지만, 효과성연구와 메타분석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메타분석이 갖는 장점 중 하나는 기존의 효과성 연구들이 적은 사례로 갖는 외적 타당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효과성결과에 새로이 보고된 연구결과들이 추가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프로그램의 외적 타당도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집단프로그램에 국한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이후 개

인, 가족, 지역사회 등 다양한 개입영역을 다루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작업은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입증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많은 연구들이 갖는 다양한 특성들과 효과크기간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특정영역에서 특정한 개입방법이 갖는 유용성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효과성의 공통기반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개입방법들이 정착되고, 이는 곧 한국적인 실천모형의 구축에 토대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메타분석은 우리의 정서와 현실에 부합되는 자생적 실천모형의 개발을 위해서 임상적 경험에서 도출된 실천지혜(*practice wisdom*)의 축적 및 검증과 병행하여 사용될 경우 보다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가 갖는 한계는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들을 분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석에 이용된 연구들이 적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연구의 효과크기를 구하는 데 있어 메타분석에서 지적되는 ‘사과와 오렌지’(*apple & orange*)의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Videka-Sherman, 1997). 즉, 다양한 연구사례들의 효과크기들을 병합할 때 동질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이한 연구특성을 가진 연구사례들을 같이 분석했기 때문에 동질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연구는 앞으로 한국적인 실천이론 및 모형의 개발을 위한 노력의 한 방법으로 메타분석이 갖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할 수 있는 효과성연구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으로 인해 메타분석 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거나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사회복지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문직간에 공유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둘 경우 효과성연구의 수는 메타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발표된 사회복지학위 논문의 수가 4,662편에 달한다는 보고(송성자, 1999)는 메타분석의 가능성을 한층 희망적이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연구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계에서 연구팀을 구성하여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⁸⁾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역시 “잘 통제되고, 세심하게 측정되었으며 정확하게 분석된 한 개의 연구는 10개 또는 100개의 그렇지 못한 연구들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May(1975: 956)의 지적으로부터 메타분석이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한다.

■ 참고문헌 ■

- 권복순·이경은. 1997. “노부모 부양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1호. pp.119~146.
- 김동배. 1992. “노인의 사회적 기능강화를 위한 집단지도.” 《한국사회복지학》 19호. pp. 45~67.
- 김동배·이윤로. 1995. 《Group Work 조사평가론》 서울 : 인간과 복지.
- 김성천·노혜련. 1998. “치료감호소의 만성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6호. pp. 1~20.
- 김성천·노혜련·최인숙. 1996. “한국의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중심적 단기가족치료 기법의 적용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8호. pp. 101~133.
- 김연옥. 1993. “사회사업가의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와 활동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5호. pp. 201~224.
- 김연옥. 1998.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학〉에 실린 경험 분석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5호. pp. 85~105.
- 김재엽·양혜원·이근영. 1999. “아내구타 피해여성의 우울증 개선을 위한 통합적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38호. pp. 68~99.
- 김진아. 1996. “직업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기술훈련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성·최일섭·조홍식·윤현숙·김혜란. 1998. 《사회복지전문직과 교육제도》 서울 : 소화.
- 김혜란. 1996. “과제중심모델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0호. pp. 25~47.
- 김혜진. 1997. “부적응아동의 부모에 대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은영. 1993. “통합분석 방법의 소개 및 응용사례.” 《한국심리학회 1993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pp. 303~317.
- 박소라. 1998. “정신분열병 환자와 가족을 위한 문제해결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이상균. 1998. “청소년기 문제예방을 위한 학교 : 가정연계 프로그램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35호. pp. 205~229.
- 송성자. 1999. “한국사회복지 실천이론의 적용과 개발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1999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55~82.
- 송혜향. 1998. 《메타분석법》 서울 : 청문각.
- 신영화. 1999. “학대받는 아내의 능력고취를 위한 집단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현숙. 1994. "알코올중독증 집단치료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3호. pp. 151~175.
- 윤현숙. 1997.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호. pp. 262~286.
- 이근영. 1999. "아내구타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 1997. "현실요법 집단프로그램에 의한 아동의 내적 통제성과 성격특성의 변화."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번송·김진욱·함건식. 1995. 《서울시 사회복지관 단순모형평가 개발: 합리적 보조금 지급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성희·이경은. 1998. "도시중등학교에서의 학교사회사업 모형연구." 《학교사회사업》 창간호. pp. 153~177.
- 이영분. 1993. "소아정신장애치료를 위한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1호. pp. 122~142.
- 이영분·김유순. 1998. "실직자를 위한 위기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호. pp. 263~288.
- 이익섭·김근식. 1999. "청소년비행화 과정 개입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7호. pp. 381~405.
- 이정숙·양옥경. 1996. "지역사회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임상개입모형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0호. pp. 165~198.
- 이태인. 199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사회사업의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종렬. 1998. "매맞는 아내의 부부체계 개선을 위한 대상중심 가족치료." 《한국사회복지학》 34호. pp. 121~160.
- 임종렬·김순천. 1996. "대상분열에 의한 자기도취적 자기학대." 《한국사회복지학》 30호. pp. 199~226.
- 정상원. 1998. "청소년 사회기술향상을 위한 집단사회사업." 《학교사회사업》 창간호. pp. 121~151.
- 정수미. 1992.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자존감 고취를 위한 단기집단치료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승희. 1997. "알코올중독자 자녀들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일섭·최성균·이영분·한혜경·김성한·김진구. 1997. 《한국 사회복지사의 실태》.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 표선숙. 1995. "학령전 장애아를 가진 어머니의 자존감과 대인관계증진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인영. 1994. "게스탈트기법을 이용한 집단치료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복지학》 24호. pp. 221~242.
- 허남순. 1998. "과제중심모델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호. pp. 399~426.
- 홍경준. 1998. "국사회복지학 연구방법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1998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31~53.
- 황성철. 1998.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과 미국사회사업의 발전: 임상적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4. pp. 215~245.
- 황성철. 1999. "한국사회복지 실천이론의 적용과 개발과제에 대한 토론." 《한국사회복지학회 1999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83~88.
- Bloom, M., Fischer, J. & Orme, J. 1995. *Evaluating practice: Guidelines for the accountable professional* (2nd ed.). Boston: Allyn & Bacon.
- Cohen, J. 1977.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 Science*. New York: Academic Press.
- De Smidt, G. A. & Gorey, K. M. 1997. "Unpublished Social Work Research: Systematic Replication of a Recent Meta-analysis of Published Intervention Effectiveness Research." *Social Work Research*. 21(1). pp. 58~62.
- Gorey, K. M., Thyer, B. A. & Pawluck, D. E. 1998. "Differential Effectiveness of Prevalent Social Work Practice Models: A Meta-Analysis." *Social Work*. 43(3). pp. 269~278.
- Greiner, M. A. & Gorey, K. 1998. "The effectiveness of Social Work with Older People and their Families: A meta-analysis of conference proceedings." *Social Work Research*. 22(1). pp. 60~64.
- Hudson, W. W. 1978. "First Axioms of Treatment." *Social Work*. 23. pp. 65~66.
- Jayarathne, S. 1982. "Characteristics and Theoretical Orientation of Clinical Social Workers: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4(2). pp. 17~30.
- Luborsky, L., Singer, B. & Luborsky, L. 1975. "Comparative Studies of Psychotherap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2. pp. 995~1008.
- Mattaini, M., Lowery, C. T. & Meyer, C. H. 1998. *The Foundations of Social Work Practice* (2nd ed.). Washington, DC: NASW Press.
- Myers, L. L. & Thyer, B. A. 1997. "Should Social Work Clients Have the Rights to Effective Treatment." *Social Work*. 42(3). pp. 288~298.

- Reid, W. J. 1997. "Evaluating the Dodo's Verdict: Do All Interventions have Equivalent Outcomes?" *Social Work Research*, 21(1). pp. 5~16.
- Siporin, M. 1985. "Current Social Work Perspective on Clinical Practice." *Clinical Social Work*, 13(3). pp. 198~216.
- Thomlison, R. J. 1984. "Something Works: Evidence from Practice Effectiveness Studies." *Social Work*, 29. pp. 51~56.
- Thyer, B. A. 1995. "Promoting an empirist agenda within the human service: An ethical and humanistic imperative."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26. pp. 93~98.
- Tutty, L. 1990. "The response of community mental health professional to client's rights: A review and suggestions." *Canadian Journal of Community Mental Health*, 9(1). pp. 1~24.
- United Way. 1996. *Measuring Program Outcomes: A Practical Approach*. VA: The Author.
- Videka-Sherman, L. 1988. "Metaanalysis of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in Mental Health." *Social Work*, 22(1). pp. 325~338.
- _____. 1997. "Meta-Analysis." in Edward, R. L. (ed. -in-Chief).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ed., vol. 2). pp. 1711~1719. Washington, DC: NASW Press.

Meta-Analysis of Intervention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Lee, Sang-Gyu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any different intervention methods have been developed to resolve the problem of clients, but research studies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such practices can be overwhelming to social workers because of the conflicting results of them. In this study, meta-analysis was used to make sense of this research, offering the general effect size of social work practice. Meta-analysis can answer the question, "how effective is the intervention?" beyond the question, "is the intervention effective?". It can integrate the fragmented results of research studies and provide the guidelines for best practice.

Combining the results of the 16 research studies, this study computed the general effect size of social work interventions. The mean d index was .6636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of .5355, .8018). Conversion to Cohen's U_3 statistics allows for the inference that three-fourths (74.7%) of the clients who participated in an intervention group did better than the average clients of non-intervention group. This means that social work interventions are practically helpful to seven of every 10 clients who experience them.

In conclusion, this study recommended the usefulness of meta-analysis, which can provide the intervention strategies based on empirical research and guide the best approaches.